

# 새신랑 김시우, PGA투어 소니오픈 우승

김시우(28)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790만 달러)에서 역전 우승했다.

김시우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 날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묶어 6언더파 64타를 휘둘렀다.

이로써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를 기록, 헤이든 버클리(미국)를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섰다.

김시우는 이번 우승으로 투어 통산 4승째를 달성했다.

앞서 2016년 8월 윈담 챔피언십, 2017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021년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142만2000달러(약 17억5000만원)다.

한국 선수가 소니오픈에서 우승한 건 2008년 최경주(53) 이후 15년 만이다. 2021년 대회는 교포 선수 케빈 나(미국)가 우승했다.

또 한국 선수 PGA 투어 최다승 부문에서 최경주(8승)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김시우는 지난해 12월 한국여자프로

2년 만에 우승 트로피...통산 4승 달성

12월 KLPGA 투어 7승 오지현과 결혼 '겹경사'



김시우가 15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 오픈 정상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골프(KLPGA) 투어에서 7승을 기록한 오지현(27)과 결혼했다.

새신랑 김시우는 이날 대회장을

찾은 새신부 오지현의 응원을 받았다.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5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시우는 1~3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맹추격에 나섰다.

이후 버클리가 11번 홀(파3)에서 보기를 범하며 공동 1위에 올랐고, 12번 홀(파4)에서 버디에 성공하며 단독 1위로 치고 나갔다.

쫓고 쫓는 흐름 속에 승부는 18번 홀(파5)에서 갈렸다.

먼저 나선 김시우가 한 타 줄이며 승기를 잡았고, 버클리의 샷은 빛나지 않았다.

김시우는 "4승을 하게 돼 기쁘다. 3승을 하고 시간이 조금 걸렸다"며 "최경주 프로님이 우승한 대회에서도 나도 우승하게 됐다.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최근 새신랑이 된 그는 "(오지현 이도 시즌 중이었는데 결혼 준비까지 다 해줬다. 미국에 있어서 시즌 중이라 한국에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선수 가운데 김성현(25)과 안병훈(32)은 최종합계 12언더파 268타로 공동 12위를 기록했다. 또 이경훈(32)은 10언더파 270타를 기록해 공동 28위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뉴스



기념촬영하는 김민선-박채은 선수와 김영도 단장 15일(현지시간) 미국 레이크플레이스 제임스세필드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제31회 레이크플레이스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민선(왼쪽)과 동메달을 획득한 박채은(오른쪽)이 김영도 단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스

## 김연경·배유나 등 올해 역대급 FA

4월 챔피언결정전 후 발표...페퍼저축은행 관심 가능

여자프로배구에서 맹활약 중인 김연경, 배유나, 김연경 등이 이번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FA) 자격을 취득할 전망이다. 창단 이후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등 구단들은 내년 시즌 성적 향상을 위해 이들을 영입하는데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프로배구는 고졸 출신 선수의 경우 한 팀에서 6년간 뛰면 자유계약 자격을 얻는다. 2번째 이상 자유계약 자격은 3년이 지날 때마다 얻을 수 있다.

이번 시즌 정규 리그 경기를 40% 이상 뛰면 자유계약 자격을 획득하는 선수는 현대건설의 경우 황연주와 황민경, 김연경, 정시영이 있다.

홍국생명은 김연경과 도수민, 김채연이 자유계약 자격을 얻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대영과 배유나, 박정아, 문정원, 전새안이 자유계약으로 풀린다.

GS칼텍스는 문명화와 한수진, KGC인삼공사는 한송이와 염혜선, 채선아, IBK기업은행은 김수지와 김희진, 페퍼저축은행은 이한비와 지민경이 자유계약으로 풀린다.

오는 4월 챔피언 결정전이 끝나면 공식적으로 자유계약 자격 획득

선수 명단이 발표된다. 발표 이후부터 각 구단은 선수들과 접촉해 영입 의사를 타진할 수 있다.

자유계약 명단이 발표되면 배구계가 페퍼저축은행의 행보를 주목할 전망이다. 2021년 창단한 페퍼는 첫 시즌은 2021~2022시즌에 3승2패에 그치며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첫 시즌 후 자유계약으로 도로공사 세터 이고은을 데려왔지만 이번 시즌에도 1승19패에 그치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페퍼는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이재영의 입단을 타진할 정도로 전력 보강에 목말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페퍼는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대형 선수들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페퍼가 최대어 김연경에 주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연경과 홍국생명 간 갈등이 증폭된다면 페퍼가 김연경 영입을 위해 접근할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김연경으로서도 끝까지 페퍼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경우 선수 생활에 의미 있는 한 획을 그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배구팬들 사이에서는 김연경이 페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 '피겨 장군' 김예림 동계유니버시아드 韓 첫 동메달

한국 피겨 여자 싱글 선수 첫 동계유니버시아드 입상



'피겨 장군' 김예림(20·단국대)이 제31회 동계유니버시아드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뉴스

김예림은 1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레이스 올림픽 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0.61점, 예술점수(PCS) 65.82점을 합해 126.43점을 받았다.

쇼트프로그램(73.73점)과 합해 총점 200.16점을 받은 김예림은 3위를 차지했다.

금·은메달은 일본 선수들이 휩쓸었다. 미하라 마이가 221.18점으로 금메달을, 사카모토 가오리가 217.42점으로 은메달을 땀다.

한국 선수가 대학생 선수들끼리 경쟁하는 동계유니버시아드 피겨 여자 싱글에서 메달을 딴 것은 김예림이 처음이다.

한국 피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피겨여왕' 김연아(은퇴)는 현역 시절 동계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한 적이 없다. 함께 출전한 최다빈(고려대 대학원)은 171.53점으로 6위에 자리했다.

## 전남드래곤즈 신일수·하남 추가 영입



재도약을 준비하는 전남드래곤즈가 '멀티' 중앙수비수 신일수(28)와 포워드 하남(24)을 추가 영입했다.

중원에서 거친 압박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신일수(189cm)는 중앙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드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하남(185cm)도 전방과 측면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공간을 활용한 움직임으로 유효슈팅을 만들어내는 공격수다. 즉시 전력인 하남은 전남에 공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